

김연경, 18년 만에 女배구 '통합 MVP' 도전

챔프전 이어 정규리그 'MVP' 도 유력
남자배구는 레오 vs 허수봉 집안 싸움

짜릿한 우승으로 '라스트댄스'를 마친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이 18년 만에 통합 MVP에 도전한다. 김연경을 전남 열린 정관장과의 2024~2025 프로배구 여자부 챔피언결정전 5차전에서 흥국생명의 우승을 이끈 뒤 기자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챔피언 MVP로 뽑혔다. 안방에서 1, 2차전을 잡은 뒤 원정 3, 4차전을 내리 패하며 위기에 몰렸던 김연경은 마지막 5차전에서 올 시즌 자신의 한 경기 최다인 34점과 함께 한 경기 최다 블로킹 7개를 잡아내며 우승에 빼기를 바랐다. 김연경이 챔피언 MVP 오른 건 2008~2009시즌 이후 무려 16년 만이다. 김연경은 데뷔 첫해였던 2005~2006시즌과 2006~2007시즌을 포함해 통산 4번째 챔피언 MVP로 등극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코트를 떠나는 김연경은 정규리그 MVP도 사실상 예약한 상태다. 정규리그 MVP는 오는 14일 열리는 V-리그 시상식에서 공개되는데, 기자단 투표는 지난달 마쳤다. 김연경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득점 7위(585점), 공격 종합 2위(46.03%), 서브 8위(세트당 0.230), 리시브 효율 2위(41.22%)에 올랐다. 아웃사이드 히터로는 국내 선수 득점 1위다. 김연경의 대항마로는 챔피언전에서 명승부를 펼친 특급 외국인 선수인 메가(정관장)와 2년 연속 1000득점을 돌파해 득점왕을 2연패 한 실바(GS칼텍스)가 꼽힌다. 그러나 정규리그 1위에 이어 챔피언까지 제패한 김연경의 수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8일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5전 3선승제) 5차전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의 경기에서 승리해 통합 우승을 차지한 흥국생명 김연경이 메달에 입을 맞추고 있다.

김연경은 2005~2006시즌부터 2007~2008시즌까지 3년 연속 소속팀의 정규리그 1위를 이끌고 MVP 3연패를 이룬 바 있다.

해의 무대에서 복귀한 첫해였던 2020~2021시즌과 정규리그 1위에 오른 2022~2023시즌, 현대건설에 1위를 내줬던 지난 시즌에도 정규리그 MVP

를 차지했다. 김연경이 챔피언에 이어 정규리그까지 MVP에 오르면, 2006~2007시즌 이후 18년 만에 통합 MVP가 된다. 남자부 정규리그 MVP는 트레블(컵대회 우승·정규리그 1위·챔피언 우승)을 달성한 현대캐피탈의 레오와 허수봉의 '집안싸움'이 유력하다. 레오는 정규리그 득점 2위, 공격 종합 4위(52.95%)에 올랐다. 또 역대 득점 부문에서도 1위(6661점)에 이름을 올렸다. 허수봉은 생애 첫 MVP 도전이다. 허수봉은 생애 첫 MVP 도전이다. 이들의 경쟁자로는 KB손해보험의 비예나가 꼽힌다. 올 시즌 라운드 MVP에 세 차례나 뽑힌 비예나는 공격 종합 2위(성공률 54.84%), 킥존 1위(성공률 65.42%) 등에 올랐다.

/뉴스시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불 피해 성금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북 지역 일대의 대형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성금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체육공단은 전남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 3627만원을 전달했다. 이종준 체육공단 경영혁신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대규모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희망하며, 전달한 성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체육공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돕고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도 울진·삼척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0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뉴스시스

전북체육회, 찾아가는 시·군체육회 정책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경산)가 올해에도 찾아가는 시·군체육회 정책간담회를 추진한다.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14일 익산과 전주시체육회를 시작으로 시·군체육회 간담회 일정에 나선다. 이는 시·군체육회와의 소통 강화 및 전북 체육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으로 매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시·군체육회 임직원 및 각 시·군별 회원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며 이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전북체육회는 각 시·군체육회의 고견 및 건의사항 등을 꼼꼼히 챙겨 체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 비롯해 전국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및 행사가 성공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도 요청할 계획이다.

/뉴스시스

체육시설 장애인이용 개방 우수대, 4년 연속 선정돼

사업비 1650여만원 지원받아
12월까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학교체육시설 장애인이용 개방지원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를 활용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업 선정에 따라 우석대는 올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로부터 1,6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오는 12월까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와 생활체육 참여 유도를 목표로 장애인 학부모에게 체육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대학 스포츠단 소속 엘리트 선수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 책임자인 김현륜(체육학과) 교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더 활발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호원대학교 스포츠단이 9일 오전 10시 호원대 문화체육관에서 '2025학년도 호원스포츠단 출범식 및 축구장 개장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2025학년도 호원스포츠단 출정

호원대, 축구장 개장식도 개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스포츠단이 9일 오전 10시 호원대 문화체육관에서 '2025학년도 호원스포츠단 출정식 및 축구장 개장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희성 총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강태창 의

원,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이종석 사무처장,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 서강일 회장을 비롯해 호원대 스포츠단 7개 종목 총 163명의 선수와 종별 지도자, 내·외빈 등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호원스포츠단의 2025학년도 출범식과 축구장 개장을 축하했다. 호원대학교는 1990년도에 우수부를 창단한 시작으로 2003년 야구선수단,

2004년 축구선수단, 2005년 태권도선수단을 창단했으며 2013년도 펜싱선수단, 2018년도 씨름선수단, 2022년 복싱선수단을 창단해 총 7개 종목의 선수단을 이끌고 있다. 또한 호원스포츠단은 전국체전, U리그 등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맹활약을 통해 2024년 기준 10년 연속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 운동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군산=이재준 기자

2025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2025.4.26.(토) ~ 4.27.(일) / 11:00 ~ 18:00 김제 모악산 금산사 잔디광장

4월 26일(토)

4월 27일(일)